‘집관’ 끝 ‘직관’ 시작… 프로야구·축구 관중석 열린다

문체부 프로스포츠 제한적 관중 입장 허용…허용 규모 등 세부 계획 확정
야구,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KIA 챔스필드, 다음주 화요일 KT전 개장

코로나19로 닫혀있던 관중석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중 허용 규모 및 경기 일시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프로스포츠 단체들과 관중 입장에 다른 철저한 방역 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덮친 올 시즌, 프로야구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KBO리그는 전세계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지난 5월 5일 대만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그 일정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됐던 3월 28일보다 한 달 여 늦은 시작이다.

프로야구에 이어 5월 8일 프로축구가 우승 경쟁을 시작했고, 프로여자골프는 5월 14일 티오프했다.

시즌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리그와 대회는 무관중으로 치러져 왔다.

야구장 관중석이 먼저 채워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리그를 시작한 프로야구는 단계적인 관중 입장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KBO 사무국과 프로 10개 구단은 개막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관중 입장 시 대책도 수립해놨다.

혹시 모를 확진자 추적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 예매로만 입장권을 판매하고, 예매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37.5도 이상) 입장 불가’ 등의 메시지를 발송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입장 단계에서도 전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게이트를 늘리고, 개문 시간도 앞당기는 등 운영 방안은 준비됐다.

일단 2판까지 매뉴얼이 제작됐으며, KBO는 정부의 방역 계획과 기준 등에 맞춰 3판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세부 시책이 확정된다면 빠르면 다음 주말 3연전의 첫날인 7월 3일부터 야구장 입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KIA타이거즈는 “아직 관중 입장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과 비율, 세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이미 코로나19시대에 따른 관중 입장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진행해 왔다. 일정이 확정되고 세칙이 나오면 바로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고 관중 입장 준비가 끝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챔피언스필드는 오는 7월 7일 시작되는 KT 위즈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관중을 맞을 전망이다.

축구는 시즌 개막과 마찬가지로 KBO리그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경기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광주FC의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7월 광주 홈경기는 5일 대구FC전, 25일 수원삼성전 두 경기다. 두 경기의 무대가 다르다. 현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광주는 25일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에 따라 광주는 두 경기장에 맞춰 관중 입장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광주FC는 “연맹과 각 구단과의 논의를 통해 관중 입장에 대한 기준점이 나올 것이다. 유관중 전환이 되고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팬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경기장 내부 거리두기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벗었다! 준우승 징크스

KLPGA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김지영, 3년만에 통산 2승
2차 연장서 6m 끝내기 이글 퍼트

김지영(24)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총상금 7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영은 28일 경기도 포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 가든·팰리스 코스(파72·650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김지영은 박민지(22)와 함께 2차 연장까지 치른 끝에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낸 김지영은 약 3년 만에 개인 통산 2승을 달성했다.

17번 홀(파4)까지 같은 조에서 경기한 박민지를 1타 차로 앞서 있던 김지영은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파에 그쳐, 이 홀에서 버디를 잡은 박민지에게 동타를 허용했다.

18번 홀에서 치러진 1차 연장에서 버디로 비긴 둘은 2차 연장에서 승부가 정해졌다.

박민지의 두 번째 샷이 왼쪽 경사면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카트 도로 쪽으로 향한 반면 김지영의 두 번째 샷은 홀 6m 거리에 놓여 이글 기회가 됐다.

박민지가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김지영의 이글 퍼트가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승이 확정됐다.

김지영은 그동안 우승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준우승을 무려 9번이나 하며 ‘준우승 전문’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있는 선수다. 또 14일 제주도에서 끝난 S-OIL 챔피언십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으나 2라운드가 악천후로 취소되면서 1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바람에 우승 기회를 날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만 준우승이 네 번 있었고 이 대회에서도 2017년 준우승한 경력이 있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이소미(21)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더라면 연장에 합류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1타를 잃고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시즌 상금 선두 김효주(25)는 이날 9번 홀까지 마친 뒤 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연합뉴스

광주, 포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3년만의 대결 0-2 패
결정적 기회, 상대 선방에 막혀
8월 8일 원정서 설욕 다짐

광주FC의 엄원상이 지난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2020 K리그1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에 여전히 높은 포항의 벽이었다.

광주는 지난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9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앞선 대결에서 전적은 5무 10패. 강팀들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지만 유독 포항에는 약한 광주였다.

앞서 ‘절대 2강’으로 꼽히는 울산현대에 1-1 무승부로 승점을 챙겼고, 아쉬운 0-1패는 기록했지만 전북현대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승부를 했던 만큼 이번 포항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여기에 박진섭 감독이 포항에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했던 만큼 광주는 필승의 각오로 952일 만의 승부를 기다렸다.

전반전 54% 점유율을 보이며 포항 공략에 나선 광주는 13개의 슈팅 중 8개를 유효슈팅으로 장식하는 등 5개의 유효슈팅(9슈팅)을 기록한 포항에 기록상으로는 앞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 강현무의 선방쇼에 광주의 득점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다.

전반 8분 이민기가 왼쪽 측면에서 띄운 크로스가 골대 정면에 있던 펠리페에게 향했다. 펠리페의 헤더까지 이어졌지만 강현무의 선방에 골대를 뚫지는 못했다.

전반 20분 펠리페가 다시 한번 아쉬움을 삼켰다. 페널티 지역에서 엄원상이 머리로 떨궈준 공을 펠리페가 멋진 터닝슛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광주의 선제골이 무산됐다.

두 차례 좋은 기회에 운이 따르지 않았던 광주는 결국 전반 33분 실점을 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권완규가 기습적으로 날린 공을 광주 골키퍼 윤평국이 막아냈지만, 바운드된 공을 팔라시오스가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광주의 실점이 기록됐다.

후반 13분에도 가슴 철렁한 장면이 연출됐다.

심동운이 광주 수비수 세 명을 따돌리고 페널티 지역에서 슛을 날렸고, 윤평국이 오른손으로 가까스로 공을 쳐냈다. 이어 떨어진 공을 향해 일류첸코의 왼발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윤평국이 두 손으로 공을 막으면서 아찔했던 실점 상황을 모면했다.

위기 뒤 광주의 공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후반 23분 이민기의 헤더가 상대 골키퍼 품에 안겼고, 후반 35분 펠리페의 중거리 슈팅도 막히는 등 좀처럼 광주의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후반 43분 나온 포항 송민규의 두 번째 골에 경기의 추가 기울었다.

무승 고리를 끊지 못한 광주는 8월 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원정경기를 통해 포항전 ‘첫 승’을 기약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충장중 3연승…춘계 중학야구 우승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광주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처음 열렸다. 충장중이 3승으로 시즌 첫 우승팀이 됐다. 〈사진〉

2020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7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함평 야구장에서 열렸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충장중은 첫 경기에서 진흥중을 7-6으로 이긴 뒤 무등중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10-5로 승리했다. 우승이 걸려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동성중을 20-3으로 크게 제압하면서 3승을 기록,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2020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7회 광주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본량구장에서 5일간 리그전으로 펼쳐진다.

◇2020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수상자(팀)

▲우승 : 충장중 ▲준우승 : 진흥중 ▲최우수선수상 : 김호진(충장중) ▲우수투수상 : 김인우(충장중) ▲타격상 : 노진우(8타수 6안타·타율 0.750·충장중) ▲최다도루상 : 송진형(4개·진흥중) ▲최다타점상 김세헌(5타점·충장중) ▲감투상 : 김재민(진흥중)▲미기상 : 신성중(진흥중) ▲감독상 : 나길남 충장중 감독 ▲지도상 : 조승우 충장중 부장 /김여울 기자 wool@